

# 꿈이 없는 시대에 꿈을 묻다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소위 라떼 시절, ‘나 때’를 말하자면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곳을 빈칸으로 비워 두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화가’, 유명세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통령’, 그런 식이었다. 나 역시 어릴 적 진심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가보다는 뭐라도 적어내야 할 것 같았을 뿐이다. 피아니스트와 무관하게도 오히려 장래희망이 무어나고 물음을 받던 입장에서, 물음을 하는 입장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다.

교사가 되어 만난 5학년 학생들 중 몇몇은 꿈이 없다고, 뭘 할지 아직 못 정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또 몇 년 후에 만난 열세 살 소녀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생소했는데, “안 짤리잖아요.”라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진행한 「진로교육현황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희망 직업이 없는 학



**정인영**

부산 다대초등학교  
교사

생 비율'은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0%, 고등학생 25.5%에 이른다. 이처럼 '장래 희망'이라는 말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학생들은 꿈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현실적 선택을 주저 없이 내보인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철학적인 고민 없이 현실적인 잣대와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과 혼란 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시작점과 지향점을 다시 생각해볼 때다.

## 1. 꿈은 단어가 아닌 문장이다

흔히 '꿈'과 '장래의 희망 직업'을 동의어로 여긴다. 보통 꿈을 떠올리면,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있다. 여기 꿈이 의사라고 말하는 학생 A와 학생 B가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의대란 입시 교육의 최정점의 성과를 낸 소수 몇 명이 합격하는 곳이다. 학생 A는 열심히 공부하고 몇 년 동안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의대 진학에 실패했다. 반면 B는 마침내 의대에 합격하고 원하던 과에 지원하여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 A와 학생 B 모두에게 주목해야 한다. 학생 A는 의사가 되지 못했으니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일까? B는 의사가 되어 더 이상 이를 꿈이 없으니 삶이 다 일구어진 것일까?

중요한 것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있다. 학생 A와 학생 B의 꿈이 '의사'가 아닌 '아픈 사람이 잘 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생 A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 기기를 만들어 내는 공학자가 될 수도 있다. 학생 B 역시 의사가 된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이제부터 B는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환자들

을 낮게 해주고 치료하려 노력할 것이다. 여러 가지 환자의 경우를 연구하고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있고, 긴급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응급 환자들을 소생시킬 수도 있다. 추가로 학생 C를 살펴보자. 학생 C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꿈이라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환자를 마주하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B는 환자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하려고 할 것이고, 학생 C는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으려 할 것이다. 같은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꿈, 이상에 따라 순간의 선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초래되는 결과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진로 교육을 시작할 때 학생 A, B, C의 사례를 들려준 뒤 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곤 한다. 고등학생 시절, 나는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입시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17세이던 그때나, 32세가 된 지금이나 내 꿈은 변함없이 ‘정의롭고 따뜻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선생님이 되어서 미래의 세상을 이끌어 나갈 나의 학생들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도록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좋은 세상의 밑바탕을 다져나가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1년 동안 나의 학생들은 교실에서 정의와 배려, 그리고 몸과 마음의 튼튼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평생토록 노력하면 우리 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 이처럼 직업이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는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어서 학생들에게 “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묻는다. 직업을 떠올리기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게 하려는 것이다. 현민이의 경우, 학기 초에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했지만, 결국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민이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던 걸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현민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응원해 주는 그 모습이 부러웠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라고 인정도 받고 싶고, 존재감도 드러내서 사랑받고 싶은 현민이는 학기 말에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장래 희망 직업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현민이는 한결같은 꿈을 꾸고 있다. 약사가 되고 싶었던 진아는 평소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소위 ‘K-장녀’였다. 엄마가 지나가듯 ‘우리 딸은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을 꼭 담아두고서 자신의 장래 희망으로 품어버린

것이다. 사실 진아의 진짜 꿈은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는 것과 언젠가는 가족을 내 손으로 든든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었다.

## 2.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스스로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 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설고 불편한 일상과 마주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러야 했으며, 일상적인 소통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종식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최전선에 섰고, 과학자들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했다. 평범한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는 단순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과 산불,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가 우리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걱정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금 이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보다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무력해지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늘 변한다. 그렇기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가 진로를 고민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넘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 3. 격변하는 시대, 세상에는 직업이 너무도 많아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세상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직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디자이너나 드론 조종사, 탄소중립 전문가 같은 직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미래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런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직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평생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내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직업은 교사, 의사, 엔지니어처럼 몇 가지 보편적인 것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보이지 않았을 뿐 우리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한다. 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직업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따라서 진로를 고민할 때는 지금 보이는 선택지만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을 키우는 일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만의 가치를 찾고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면, 어떤 시대든 스스로 빛나는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4. 꿈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사람은 늘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 이때 꿈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을 갖는 것과 같다. 꿈은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을 넘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나가는 과정이다.

물론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고한 꿈을 갖기란 쉽지 않다. 아주 작은 관심에서 출발해도 좋고, 아직 막연한 상태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 있다고 느끼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지는 일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고 사소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한 나만의 길이 보이게 된다. 때로는 여러 번 흔들리거나 방향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 꿈을 더욱 선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순간의 편안함에 이끌려,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반면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삶의 선택이 선명해진다. 설령 어려운 길일지라도 꿈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갈 용기를 낼 수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꿈에서 비롯된다. 꿈은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며,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가게 한다.

꿈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된다. 처음엔 희미하고 작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경험을 쌓아가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다 보면 점점 뚜렷해지고 단단해진다. 방향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꿈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준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도전과 실패 속에서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갈림길 앞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그리

고 그 꿈은 언젠가,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 필자 소개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산처럼 듄직하게’라는 의미를 담은 솔뫼반 9기를 운영 중이다. 솔뫼반 35기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길러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학생들과 도란도란 알콩달콩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심이 많으며 솔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영상, 캐릭터, PPT 등)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